

2) 팔선대(八仙臺)

수정계(水精溪)에 큰 돌(大石)이 돌출하여 대(臺)가 되었는데, 그 형상(形狀)이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것과 같아 그 위에 수십 명의 사람이 앉아 놀 수 있고, 층층으로 되어 있어 올라가기가 편리하다. 옛날에 노인들이 거기에 올라가 장기를 두기도 하고 술을 마셨다 하여 팔선대(八仙臺)라 하며, 또는 군수가 제자 8명으로 하여금 유람케 하였다 하여 팔선대라 한다. 조선조 정치가로 기성면 황보리로 유배 온 아계 이산해 선생의 시와 기문이 전한다.

제2절 광품2리(廣品二里)[속명 : 평전(平田)]

1. 마을의 자연환경

광품2리는 평전, 도계[동막, 옹구동막], 새동막, 진깁빈, 지우들[뒤두들] 등 5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으로는 합수나들을 경계로 광품1리의 원광품과 접하고 서쪽은 오태산을 경계로 금천2리 진티와 닿아있다. 또 우거지골을 경계로 소태3리 하암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밤티골을 경계로 덕인1리 굴티와 접하며 북쪽으로는 잔디바우골을 경계로 평해읍 삼달2리와 접한다. 남동쪽은 베루끝을 경계로 광품1리와 닿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조리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다. 소태3리 하암마을과 경계 지점인 독발골 개골산에 암산을 뚫어 조성한 ‘굴보’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평전마을을 처음 일군 성씨는 야성 정씨(野城鄭氏), 또는 경주 이씨(慶州李氏)로 전하며 마을 주변에 야성 정씨 묘소가 다수 현존한다. 이후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세거하였다. 마을 개척 당시 ‘큰 들(坪)이 있다’ 하여 평전(平田)이라 하였다. 1765년 무렵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노은리에 속했으며, 1808년에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도막리(陶幕里)로 개명되었다. 1912년에 도계리로 개명되었으며,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로 재편되고,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2리로 분리, 편제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33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평택 임씨(平澤林氏), 영천 이씨(永川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노적봉(露積峰)

마을 앞산(山)이 벚단을 쌓은 모습이어서 노적봉(露積峰)이라 하는데, 숲이 많이 우거지면 마을에 새로운 부자(富者)가 난다고 하며, 산사태(山沙汰)가 나면 마을이 가난해진다고 전해진다.

제3절 금천1리(金川一里)[속명 : 씨나리]

1. 마을의 자연환경

금천1리의 속명은 씨나리이다. 동쪽으로는 유현산을 경계로 광품2리 새동막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기린산 진형골을 경계로 금천2리와 접한다. 남쪽으로는 신림들을 경계로 금천3리와 닿아있으며, 북쪽으로는 오대산을 경계로 광품2리 평전과 접한다. 금천1리는 음지마, 양지마, 산촌의 세 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지마을 원금천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음지마는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 양지마는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의 안산은 백암산이며, 주산은 칠보산이다. 임란 무렵 김녕 김씨(金寧金氏)인 김응선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 마을 앞 내(川)에 ‘연쇠[무쇠가루]’가 흐른 것을 보고 씨나리가 지었다고 전한다. 마을 앞을 흐르는 금천리 계곡에 구암 황숙이 지은 관란정(觀瀾亭)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되었다. 1947년 문을 연 금천초등학교가 있었으며, 2000년 3월 온정초등학교와 통폐합되었다. 2004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636년경에 김응선(金鷹銑)이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할 당시 앞 내(川)에 연쇠의 흐름을 보고 마을 이름을 씨가리라 하다가 1827년에 김치성(金致聲)이라는 선비가 씨를 금(金)으로, 나리를 천(川)으로 하여 마을 이름을 금천(金川)이라 지었다고 전한다. 1765년 무렵은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금양리에 속했으며, 1871년에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금진리로 개명되고, 1912년에 금천리로 분리, 개명되었다.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로 재편되었으